

‘큰 산은 큰 덕’이라고 했어요. 산은 인간을 가르쳐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지,
세상에서 악을 쓰며 이루려는 것들이 과연 의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소설가 박범신의 대화 中—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아이폰 앱 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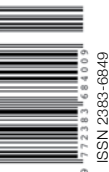
VOL. 01
OCTORBER
2014
10

MONTHLY FOREST MAGAZINE

magazine 숲

백두대간 가을산행

단풍유람, 그림같은 풍경에 취하다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부연동마을’
나무 위의 집 ‘트리하우스’
박범신 소설가와의 특별한 만남
이병률 시인의 ‘숲, 열매 그리고 꿈’





파타고니아 피츠로이

테초의 모습으로
영겁의 세월을 견뎌낸 숲.
두려움과 설렘을 품고
수 천 년 반복해 온 하루의 준비.
위대한 의식을 시작한다.

글 사진 / 이상은 여성 산악사진전문가

발행일	2014년 10월 13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편집장	김형완
편집	대변인실 magazinesup@forest.go.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김병구, 엄지민, 이대영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간행물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하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Cover Story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기점으로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같습니다. 가을빛이 짙어져 가는 10월, 〈magazine 숲〉은 자연과 숲, 삶과 역사, 단절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백두대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땅과 자연에 대한 감사를 담았습니다.



Contents

Special	
Travel	06
백두대간(白頭大幹) 가을산행 하늘이 선물하는 계절의 변화,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다	
Life & Nature	12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부연동마을'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채우다	
Place	16
지리산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어른들에 의한, 어른들을 위한 나무 위의 집 '트리하우스'	
Essay	20
이병률 시인의 감성 에세이 숲, 열매 그리고 꿈	
People	22
박범신 소설가와의 특별한 만남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트레킹, 히말라야 출라체를 걷다	
Focus On	26
3,0으로 살펴보는 산림행정 이야기	
Walk	28
걷고, 보고, 느끼는... 여기는 '서울숲역'입니다	
Enjoy	32
기능과 멋 모두 충족시키는 아웃도어 잇 아이템	
Camping	34
Basic & Smart '실용주의 캠핑'의 시작	
Green Tour	36
500여 년의 세월이 포개진 푸른 수목원을 걷다	
Green Table	40
내겐 너무 달콤한 '밤'	
Forest People	42
숲 속 안내자를 따라 "녹음 가득한 숲을 알려드려요"	
Culture	44
10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SNS	46
'톡' 하면 '톡' 나오는 산림청 SNS의 모든 것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News	48
이달의 산림청 소식	

Invitation

숲으로의 초대



“오—매 단풍 들것네”

문득 날아온 붉은 감잎에 놀란 듯 외치는 누이의 이 한마디만큼 가을의 설렘을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영랑 시인의 이 시구(詩句)에서 떠오르는 누이의 표정은 이른바 '잘방'의 대명사 격인 “어머! 저건 사야해”라고 외치는 엄지의 탄성과 절묘하게 오버랩 됩니다.

계절의 변화는 숲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초록빛이 노랑고 붉게 변해 가는 숲을 보면 가슴은 왠지 쿵닥쿵닥 뛰고, 조용한 곳에 머물며 사색에 잠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가을 숲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울창한 우리 숲은 언제 찾아가도 반겨주는 오랜 친구처럼,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숲은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맑은 산소로 바꿔주는 공기청정기면서 비를 머금어 깨끗한 물로 돌려주는 녹색댐이기도 합니다. 목재와 종이를 주고 청정 먹거리도 키워줍니다. 숲은 사람과 들짐승과 작은 벌레들이 살게 해주고 치유합니다. 우리는 숲에서 참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숲으로 다가갈 차례입니다. 〈magazine 숲〉이 그 길이 되고자 합니다. 창간호에 서는 백두대간을 물들이는 단풍 명산을 찾아 갑니다. 설악산에서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오매!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바람과 함께, 〈magazine 숲〉으로 초대합니다.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白頭大幹

하늘이 선물하는 계절의 변화,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다

백두대간(白頭大幹) 가을산행



10월, 익숙함과 낯설음의 풍경이 동시에 펼쳐진다. 여름내 푸르렀던 잎들이 창창히 생기를 뽐내는가 하면, '아뽕싸' 찬비람에 흠칫 놀란 잎사귀들은 그 끝머리마다 가을빛으로 물이 들었다. 유독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 가을의 시공간 속, 알록달록한 숲의 천진난만함에 시선을 빼앗기고 만다. 백두대간에 가을이 변저 간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의 병사봉에서 시작해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한반도의 등뼈이자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다. 그리고 그 굽은 산줄기와 산이 낳은 물줄기를 통해 우리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미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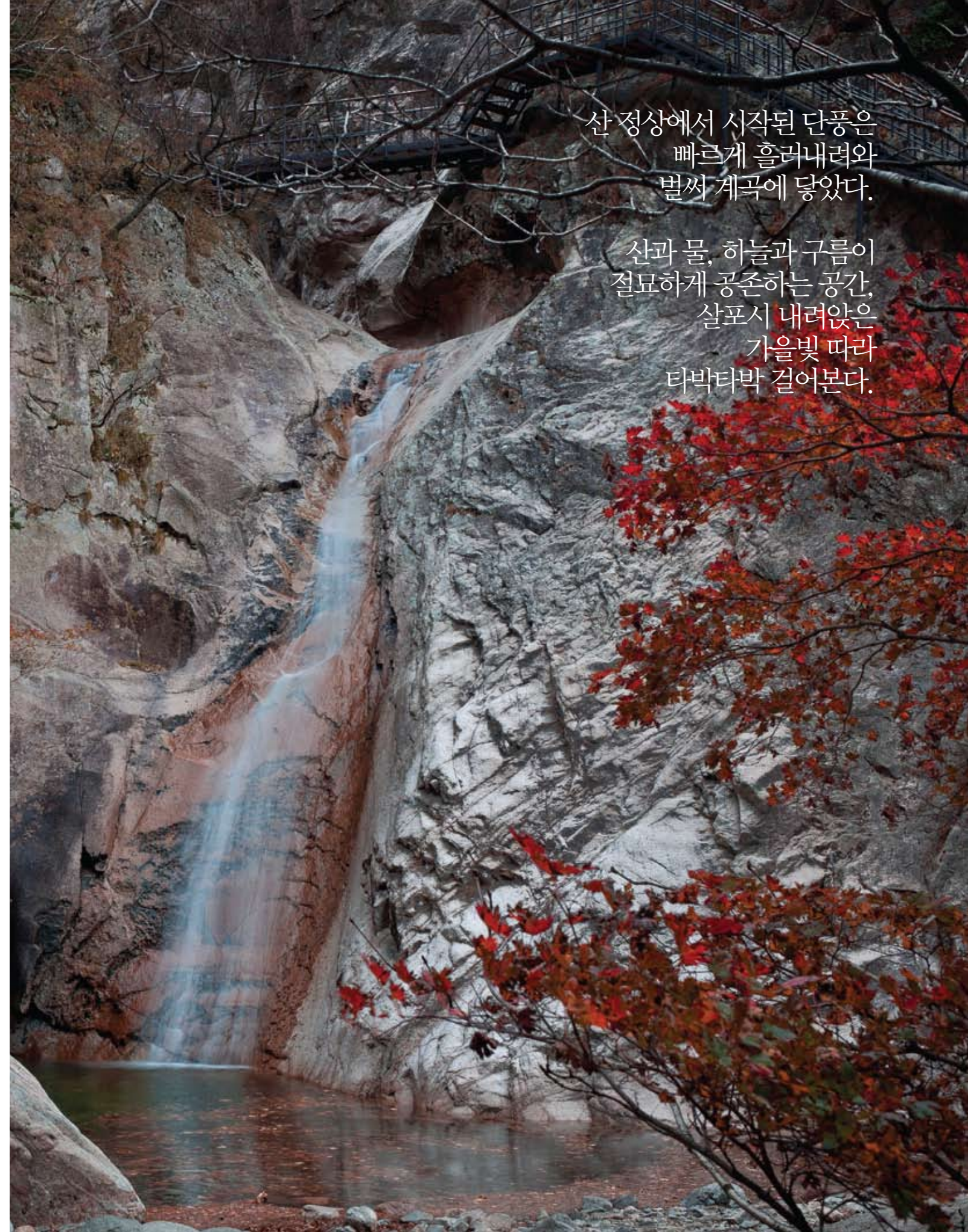
남한의 가을 단풍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백두대간을 타고 다도해로 내려온다. 남하 속도는 하루에 20~25km, 대략 시속 1km다.

단풍의 색은 푸른빛이 붉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엽록소에 가려 있던 본래 붉은 색소가 가을이 되면서 파괴된 엽록소를 뚫고 드러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시작된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아래로 20% 가량 변질 때를 말하며, 80% 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기'라 한다.

실제로 올 가을은 예년보다 길거라고 한다. 10월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고, 맑고 선명한 가을 날씨가 자주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가을 단풍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이 고울 가능성이 크다. 10월 초쯤 첫 선을 보이는 단풍은 전 달의 일교차가 클수록 색이 더 진해지기 때문이다.

산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은
빠르게 흘러내려와
벌써 계곡에 닿았다.

산과 물, 하늘과 구름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공간,
살포시 내려앉은
가을빛 따라
타박타박 걸어본다.





단풍유람, 그림 같은 풍경에 취하다

높은 산(정상 1,614m)의 경우, 산의 정상과 하단부의 단풍 차이가 약 10일 이상 차이가 난다. 때문에 단풍 감상을 위해 등산을 할 것인지, 산 아래 부분에서 가벼운 트레킹을 할 것인지 기간에 맞춘 산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택해 부상과 안전사고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설악산

백두대간 남한구간에서 단풍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곳은 설악산으로, 남한 제일의 가을명산으로 꼽힐 만큼 아름답다. 그 중 으뜸은 천불동계곡이 아닐까 생각한다. 원래부터 유명한 등산코스인데다가, 가을단풍의 최고 절정 코스이기 때문에 10월 초, 중순이면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조금 여유 있게 단풍을 감상하고 싶다면, 양폭 산장과 희운각까지 천불동계곡 전체를 산행코스로 잡는 것도 좋다.

2. 오대산

오대산에선 월정사에서 동피골주자장을 지나 상원사까지 8.1km(3시간), '선재길 코스'가 유명하다. 도로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린 길로 노약자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길이 순하며 경치도 빼어나다.

3. 소백산

소백산은 한국의 알프스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사계절 수려한 경관을 뽐내는 명산이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라면 소백산 운해(雲海)를 자주 볼 수 있어 단풍산행의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단풍 탐방 추천 코스는 회방탐방지원센터~회방사 구간과 자락길을 거니는 삼가탐방지원센터~비로사~초암사~초암공원지킴터 구간이다.

4. 덕유산

덕유산에서 가장 먼저 물들기 시작한 설천봉~향적봉으로 이어지는 단풍은 울긋불긋 고운 자태를 뽐낸다. 덕유산 인근에 있는 무주리조트에서 해발 1,520m까지 단숨에 오르는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에 오르면 향적봉을 20분만에 산책하듯 오를 수 있으며, 등산로를 이용하더라도 산이 험하지 않아 쉬엄쉬엄 오르기에 좋다.

5. 지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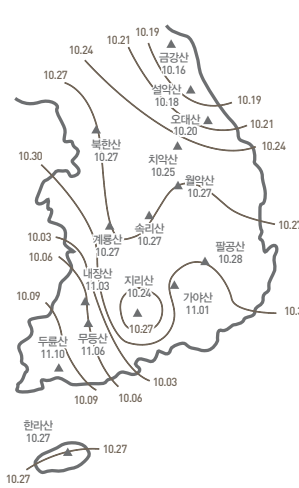
산도 붉게(山紅), 물도 붉게(水紅), 사람도 붉게(人紅) 물들인다고 하여 '삼홍(三紅)'으로 이름난 지리산 피아골은 대표적인 단풍 산행 코스로 꼽힌다. 피아골 직전마을~피아골 삼거리 구간은 총 8km 구간으로 탐방하는 데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오는 11월 2일과 3일에는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가 개최되니 함께 즐기는 것도 좋겠다.

향로봉



천왕봉

단풍절정 예상분포도(월, 일)



단풍이 드는 이유는?

가을이 되면 잎의 엽록소가 역할을 못하게 되고, 자가분해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 생성되는 종은 붉은색 또는 갈색계열의 단풍이 들게 되고, 안토시아닌이 생성되지 않는 종들은 엽록소의 녹색에 가려 보이지 않던 잎 자체에 들어 있는 노란색 색소들이 나타나게 되어 노란단풍이 들게 된다.



1. 설악산을 물들인 단풍전선이 남하를 서두르고 있다.
2. 곱게 물든 단풍은 가을 산사의 고즈넉함을 더하고 따사로운 가을볕에 단풍은 저마다 화려한 색감을 뽐낸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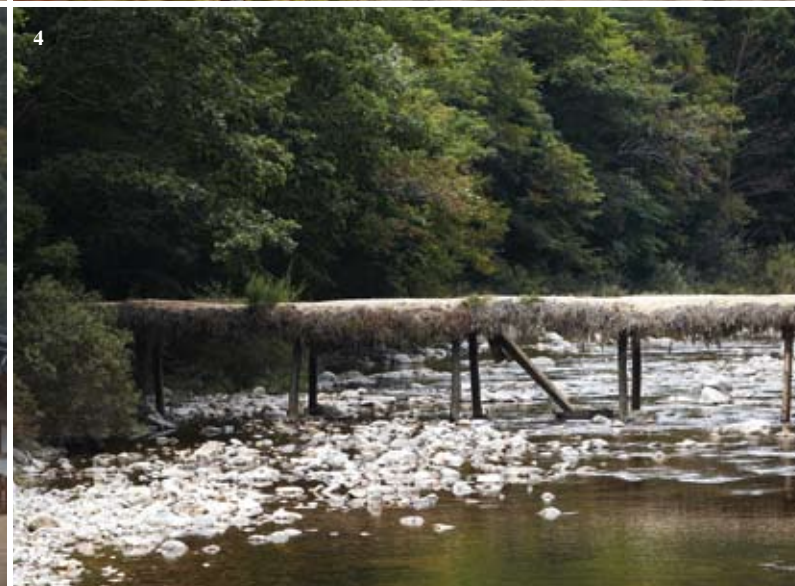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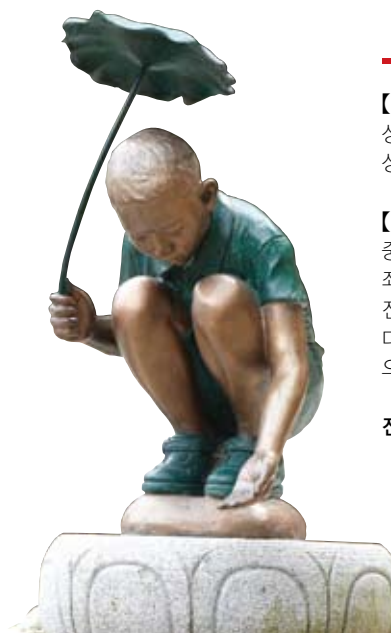
4

1.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인 후, 적멸보궁으로 향한다.

2. 상원사로 오르는 '번뇌가 사라지는 길'

3. '전나무 숲길 걷기명상' 등 월정사 템플스테이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4.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선재길에서 만날 수 있는 쉼다리.



【 오대산 코스 정보 】

상원사-비로봉-상왕봉-두도령-북대사-상원사(5시간 15분 소요)
상원사-중대사-적멸보궁-비로봉(1시간 40분)

【 교통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진부 IC → 15km 지점 좌회전 → 월정 삼거리 좌회전 → 오대산 국립공원 → 매표소 → 월정사 주차장
진부시외터미널에서 월정사를 거쳐 상원사로 가는 시내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다닌다(06:30~19:40). 마찬가지로 상원사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다닌다. 마지막 시내버스 시간은 오후 7시 40분이다.

진부시외터미널 : 033) 335-6307



백두대간의 중심축, 오대산을 걷다

오대산은 백두대간의 중심축에 위치한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 등 다섯 봉우리를 아우르며 후덕한 자태를 지니고 있다.
마치 다섯 개의 봉우리가 오목한 원을 이뤄 거대한 연꽃 봉오리를 연상케 하는 오대산의 중심에는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 있다.
그 오대산 자락에 들어앉은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이르는 8km 남짓의 계곡 옛길이 바로 '선재길'이다.

보이는 소리, 들리는 풍경

옛길의 시작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인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더 아래쪽인 월정사 일주문에서 떼는 것이 좋다. 무성하고도 높다란 1km 거리의 전나무숲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0여 미터가 훌쩍 넘는 전나무 1,700여 그루는 마치 땅을 박차고 솟아 있는 듯하다. 부드러운 흙길을 느긋하게 걷는 길,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이 정수리를 간질인다. 본격적으로 선재길에 들어섰다.

가을을 닮은 야생화 향기와 흙냄새가 아지랑이마냥 피어오른다. 돌과 흙, 나무뿌리가 뒤엉킨 숲길.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걷고 또 걸었으면 이런 길이 만들어졌을까. 걷는 걸음마다 신기하고 즐거워 지루할 틈이 없다.

옛길은 찬찬히 걸어야 그 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큰 물줄기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또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돌다리와 출렁다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핀 평탄한 길과 콩밭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야생 동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자그마한 열매를 오물오물 먹는다. 다람쥐는 사람이 나타나도 피하지 않는다. 나무 밑동, 땅이 들쭉 들쭉 움직이는가 싶더니 작은 몸집의 두더지가 순식간에 나와 지렁이를 물고 사라진다. 축축한 이끼에 몸을 숨긴 개구리들도 더러 보인다.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가을 정취를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면 그 곳이 바로 '선재길'이다.

굽이굽이 옛 흔적 따라

조금 더 걸으니 '화전금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이 나타난다. 한때 옛길 주변으로 360여 가구의 민가가 있었다. 모두 화전민은 아니었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벌목업이 성행하다 보니 산림 벌채에 종사하던 사람의 수가 많았다. 당시 오대산이 겪었을 몸살이 눈에 선하다. 해방 이후 60년대 말에 정

부의 이주정책에 의해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상원사와 오대산 일대에는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다. 세조가 상원사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오대천의 맑은 물이 좋아서 혼자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동승에게 등을 밀어줄 것을 부탁했다. 목욕을 마친 세조는 동승에게 “어디 가든지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고 말하지 말라” 고하니 동승은 미소를 지으며 “어디 가든지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세조가 놀라 주위를 살피니 동승은 간 곳 없고 어느새 자기 몸의 종기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을 알았다. 이렇듯 문수보살의 가피로 불치병을 치료한 세조는 크게 감격하여 화공을 불러 그때 만난 동자의 모습을 그리고 목각상을 조각하게 하니 이 목각상이 바로 상원사의 문수 동자상이며, 목욕을 할 때 관대를 걸어두었던 그곳이 지금의 관대절이다.

거기에 발길을 막은 고양이 덕분에 자객으로부터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일까지 이곳에 얹힌 이야기들이 다양하다. ☺



釜淵洞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부연동마을'

소유한 것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소유한 것이 적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 적게 소유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충실한 기분이 들며, 삶이 정돈되고 머릿속이 점점 맑아지게 된다.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채우다

1. 워낙 깊은 산골이어서 6.25전 쟁이 난 줄도 몰랐다는 이 마을은 백두대간 허리부분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물줄기를 따라 띄엄 띄엄 두 세집씩 흩어진 길쭉한 모습이다.
- 2,3. 갯방풍 심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
4. 부연동마을 곳곳에서 표고버섯 자국을 볼 수 있다.

낮설지만 따뜻한

백두대간은 오대산과 설악산을 이으며 사이사이에 마을과 골짜기를 숨겨 뒀다. 그중 부연동마을은 오대산 국립공원 두로봉 골짜기에 자리한 외딴 마을이다. 동해바다가 지척이지만 '깊다'라는 느낌이 확 와 닿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만큼 깊은 산골. 낮 놓고 바라본 하늘에는 구름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고, 스산한 바람 소리가 적막을 깨고 숲을 떠돈다.

산길 주행이 끝나갈 무렵, 부연교를 지나 삼산교에서 잠시 차를 멈춰 세웠다.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길 양 옆으로 탐스러운 복숭아와 자두가 알알이 영글어가고 있다.

우리는 다시 발길을 재촉해 최왕수 이장 댁으로 향했다. 이 마을에 이사온지 30여 년 가까이 됐다는 그는 산나물과 약초를 재배하면서 이 마을에 터를 잡았다. 본격적인 마을 산책을 앞두고 그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곳은 여름보다 겨울이 살만합니다.”

“겨울엔 눈이 많이 와서 더 힘들지 않나요?”

“그래도 겨울이 좋아요. 비가 계속 올 적엔 언제 그치나 하고 금세 실증 나는데 눈 내리는 풍경은 질리지 않아요. 보고 또 봐도 좋더라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들

부연동마을은 둘러볼 곳이 많다. 그중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마을 한 가운데에 자리한 부연약수터다. 많지는 않으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약수는 강한 탄산과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주변이 별경계 물들어 있었다. 소화를 돕고 신경통, 눈병 등에도 효과가 있다 하여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병이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두면 이틀이 지나지 않아 붉은 색으로 변색되기 때문에 먼 곳까지 옮길 수는 없다고 한다.

부연약수터를 벗어나 조금 위로 올라가면 민가 뒤로 취나물 텃밭이 넓게 펼쳐진다. 밭 옆으로는 오대산 신배령 문푸레골 안쪽에서 발원하여 양양 남대천을 지나 동해로 빠지는 부연천이 흐르고 있다. 이 천을 따라 올라가면 가마솥처럼 생긴 깊은 소(沼)가 나타난다. 마을의 명소인 '가마소'다. 가마 부(釜), 연못 연(淵)의 '부연동(釜淵洞)'이라는 마을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숲길로 들어서자 물줄기가 더 거세진다. 가마소의 수심은 5m 이상이라는데,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검푸른 색을 띄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간혹 물놀이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주었다.

이 마을에서 유명한 곳이 또 하나 있다. 영화배우 한석규가 등장한 모 통신사 CF의 배경이 되었던 '부연분교'가 바로 그곳이다.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서는 흑한기체험을 위한 촬영 장소가 됐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하루 빨리 좋은 아이টে으로 부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사람들

부연분교를 지나 조금 걷다보면 '제왕술'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만날 수 있다. 제왕술은 수령 500년의 국내 최대 크기(수고 25m, 둘레 3.7m, 수관직경 1.2m)의 소나무이다. 형질이 뛰어나고

5. 서늘한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산나물인 '산마늘'은 파종하여 수확하기까지 3~4년이 걸리는 작물이다.

6. 학생들이 하나 둘 떠나 폐교가 된 부연분교.

7. 산수가 아름답고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연의 자연을 간직한 곳. 부연천에는 1급수에서만 산다는 산천어가 서식한다.

8. 강한 탄산과 철분을 함유한 약수가 솟아오르는 부연약수터.

釜淵洞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 걸쳐 있는 이곳은 첩첩산중의 오지마을이다. 시금한 약수와 아담한 분교, 원시의 숲이 남아 있다.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산림분야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를 마을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성화목으로 여기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성황당이 자리한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를 지냈는데, 요즘은 음력 3월 3일에 한 번 제를 지낸다고 한다.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옛날부터 산신령을 믿었어요. 또 마을에 성황당이 있다 보니 동네에서 쌀을 모아 제를 지냈고, 이 마을이 월정사, 상원사, 홍천 내면을 오가던 옛길과 인접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무사안녕

과 소원을 빌었지요. 실제로 제사 지낼 때는 덕담 비슷하게 ‘우리 동네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고사를 지내요.”

부연동마을에는 현재 38가구에 8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살았다지만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마을의 옛 모습이 궁금하던 차에 지나가시던 마을 어르신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넙죽 인사를 드리고 몇 마디 나눌 수 있었다.

“그저 옛날 옛적엔 봄이 오면 으레 이 들판에서 농악대들이 놀았지. 이 너머 삼산에서도 한 팀이 오고, 4리 거기서도 한 팀이 오고, 양양서도 한 팀이 왔어. 씨름도 하고, 줄당기기도 하고 그랬지. 여기가 벽촌이니까 산이 깊어 사람들 인심이 좋고 상부상조하는 힘이 강했어.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6.25 사변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졌지. 그게 아쉬워...”

숨 쉬는 흙 속에 건강이 있다

부연동마을에서 제일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엄나무’다. 큰 가지가 덕지덕지 붙어 제 몸을 철벽방어하고 있는 엄나무가 마을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최왕수 이장 댁도 집 앞 밭에서 엄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다.

“엄나무는 봄에 새순이 올라와요. 한 뼘 정도 자라면 수확을 하고요. 살짝 데쳐서 무쳐먹으면 씹싸름하면서도 맛있어요. 사포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죠.”

다른 한쪽 밭에서는 할머니 세분이 모여 앉아 갯방풍을 심고 계신다. 온몸에 흰 잔털이 뽀뽀하게 나 있는 이 산야초는 원래는 해변의 모래땅에서 자라는데 이곳에서는 특수작물로 재배하고 있다.

“이걸 밥상 위에 올리려면 5년을 기다려야해. 요 뿌리는 약재로 쓰고 연한 잎자루는 쌈으로도 먹고 나물로도 무쳐먹고, 이게 참 맛있사. 봄에 많이 심는데 어린 순이라서 지금도 심고 그러지. 누구여? 워서 왔수? 무슨 띠유? 우리 막내가 돼지핀데. 이걸 또 그렇게 잘 먹어(웃음)”

낯선 이에게도 서먹서먹하지 않은 할머니들의 웃음과 수줍은 강원도 사투리가 정겨웠다. 이밖에도 부연동마을은 2002년도에 산림청 산촌개발사업에 의해 표고, 산채, 산약초 등 소득작물의 생산 효율성을 위한 재배하우스를 조성했다. 또한 고산목에서 채취한 토종꿀 생산단지가 있으며, 이곳에서 채취한 토종꿀을 섞어 도라지, 마늘환 등을 만드는 공장도 있다.

“산골마을이 본디 산이 깊고 높아 농사지를 평지가 별로 없어. 밭을 갈면서 수없이 돌맹이들을 솥아내고 걷어내고, 거기에 감자도 심고, 조, 콩, 메밀 주로 이런 걸 심었고, 산삼도 많이 나지 않지만 더러 나. 연간 그저 한 20~30뿌리 정도... 그라고 자연산 송이도 유명하고.”

실제로 마을을 걷다보면 돌맹이들이 밭고랑 옆에 산을 이루고 쌓여있다. 이 작은 마을은 여전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평온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일상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다. ☀



TREE HOUSE

어른들에 의한, 어른들을 위한 나무 위의 집 '트리하우스'

in 지리산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사방이 나무로 만들어진 네모난 공간에 누워본다.
창문을 크게 열어두고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푸른 숲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교묘한 빛의 너울, 솔잎 스치는 바람 소리,
모호한 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한 숲의 정적을 깨운다.
트리하우스를 만듬으로써 가장 즐기게 되는 것은 바로 어른이다.
그들은 자연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고,
흠길을 걸으며 자연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버려야 했던 순수함을
이곳, 나무 위의 집에서 떠올린다.

자연과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집

트리하우스는 나무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코로와이 족의 풍습에서 시작됐다. 대항해시대에 이들의 신기한 풍습을 목격한 유럽인들 역시 고국에 돌아가 나무 위에 집을 지었고, 곧 유럽 곳곳에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살아있는 나무를 토대로 만들어진 트리하우스에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소망이 담겨있다. 때문에 건축 이전에 나무의 생태나 생리를 파악, 즉 나무의 건강 상태를 알고 인공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설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화귀본능을 자극하다

'자연스럽게' 살고픈 이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정착했다. 백두대간 끝자락인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에 위치한 국내최대규모의 '지리산 백두대간 생태체험관'이 바로 그곳이다.





1



2



3

1. 나무 데크가 깔려있는 관리실 건물 정면으로 트리하우스가 위치한다.
2. 트리하우스 내부. 건축 내·외벽과 천장 모두 편백나무로 시설되어 있다.
3. 졸졸졸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 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릴 뿐 사방이 고요하다.

Information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남원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32-1
문의 : 070)4337-4546
www.jirisanecamping.com

상주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705번지
문의 : 054)536-0914
www.forest.or.kr

양양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107-61
문의 : 033-670-2644
www.songivalley.co.kr



지리산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그을린 여름이 채 가시지 않은 9월, 지리산 중턱으로 들어갈수록 습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사방이 적막한 가운데 청량한 계곡물소리와 모호한 새들의 지저귀만이 숲을 가득 채운다. 이곳의 주 기능은 ‘힐링’과 ‘명상’으로 트리하우스를 비롯해 전망대, 솔피쉼터, 산책로, 약용초 화원, 방향 식물원, 계곡 쉼터 등 체험 휴양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수령 70년이 넘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짙은 피톤치드 향기가 삼림욕의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또한 포장된 길과 나무 데크가 모든 시설들을 연결하고 있어 산책하기에도 안정맞춤이다.

생태체험관은 휴미·교육·체험·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CGST 관계자는 “주위에 산재해 있는 산림 인프라 시설인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달오름 마을, 지리산둘레길, 노치마을 등을 연계해 사람들의 심신수련과 정서 함양에 부합하

는 맞춤형 산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례 회의를 통해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사항과 보안사항을 수렴해 미흡한 사항들을 보안 중”이라고 전했다.

이곳을 둘러보면서 드는 생각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것이었다. 체험·휴양시설주변의 소나무림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과 2015년에 완공된 전시관은 지열난방방식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활용을 할 수 있게 설계했다는 점 등이다.

자연 그대로를 살린 트리하우스

지리산 백두대간 생태체험관에는 총 8동의 트리하우스가 있다. 디자인, 실용성, 안정성, 건강 측면에 초점을 맞춰 개장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철순 관장이 트리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소나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배치했습니다. 나무들이 베란다를 뚫고 솟아있는 풍경을 접할 수 있죠. 건축면적은 5평이며 건축 내·외벽과 천장은 건강에 좋다는 편백나무로 시설했어요. 지붕색깔은 친환경을 강조하기 위해 솔잎 색과 유사한 어두운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트리하우스를 잇는 오솔길 옆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관리실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앞으로 데크가 깔려 있어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 취사도구는 관리실 안 식당에 준비되어 있다.

“트리하우스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에요. 좋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데도 말이죠. 특히 이곳은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해발 600~700m 사이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서 생성되는 피톤치드와 함께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트리하우스 외에도 클래식 티피 텐트 기본형 2동과 글램핑 카바나 10동 총 12동의 글램핑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바쁜 일상에 지쳐있다면, 한 박자 천천히 쉬었다 간다는 마음으로 방문해주세요. 오시는 모든 분들이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줄기 백두대간이 각인되어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

체험 프로그램

주변 텃밭을 이용한 농촌생활 체험, 자연 힐링프로그램, 남원 옷칠 체험 강좌 등을 구축해 지역문화 및 사회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다양한 힐링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계절 주변 관광지&축제

봄(3~5월)
고로쇠 채취 체험관광, 춘향제

여름(6월~8월)
지리산 여름 휴양지인 반야봉, 뱀사골

가을(9~11월)
흥부제, 허브밸리축제, 지리산 산행체험

겨울(12월~2월)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숲, 열매 그리고 꿈

기차를 타고 숲이 보이는 곳에 내렸지.
 숲이 보이길래
 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도
 한참 뒤에 내렸는데 그곳도 숲이었어.
 숲은 바람결에 필름이 뒤엉켜 서로 부벼대는 소리를 냈어.
 멀리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속닥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그건 내가 숲에 오랜만에 왔다는 증거였고 그저 환청이었지.
 뭔가를 하러 숲에 간 건 아니었는데 숲에 친구가 있었어.
 눈을 감으니 친구들의 형태와 냄새들은 더 짙어져만 갔지.
 게다가 눈을 뗐는데 내 모습을 꼭 닮은 나무 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귤속의 귀지가 큰 소리로 부스럭거리면서 움직이는 것과는 같았지.
 숲에서라면 뭔가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
 뭔가 한 가지를 오래해 본 적이 없는 흐릿한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적 같았지.
 불가능한 것들을 듣고, 보고
 그렇게 달리고 싶다고 생각했어.

숲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매달려 열매가 되듯.
 숲에 들어가면 누구나 살아 꿈틀거리잖아.
 나도 날개를 움직여 이리로 저리로 길을 만들면서 날아다녔어.
 나의 날개로 찬란한 숲의 색채들을 건드릴 때마다 소리가 났어.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한 거야.
 도시락을 싸서 숲에 가는 게 아니라
 도시락에 숲을 담아
 언제라도 꺼내보고 싶을 때 꺼내보는 삶을,
 그런 불가능의 꿈을 옆에 가까이 두고 살고 싶다고.

- 이병률

시인 이병률

시인 이병률은 1967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좋은 사람들', '그날엔'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저서로는 시집 <당신은 어떤 가로 가려 한다>, <찬란>, <눈사람 여관> 등과 여행산문집 <꿀림> 등이 있으며, 제11회 현대시학 작품상을 수상했다. 현재 '시힘'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PARK BUM SHIN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트레킹
히말라야 출라체를 걷다

소설가 박범신

‘죽음의 지대’로 불리는 히말라야 출라체를 등반하던 중 조난을 당한 두 형제가 극적으로 생존한다.
두 형제의 목숨을 건 험난한 등정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 마주하는 생의 존엄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설 <출라체>.
책의 저자인 박범신 작가에게 히말라야는 대자연 이상의 존재이다.
그는 1990년 처음 히말라야를 찾은 이래 10여 차례에 걸쳐 그 곳을 걷고 또 걸었다.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그 영원성 앞에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한 자아를 만난다고 말하는 박범신 작가.
그의 소설 속에는 존재의 근원을 놓치지 않으려는 절실함, 순수한 열정이 담겨져 있다.

청년작가 박범신

박범신 작가의 집은 호수를 곁에 두고 계룡산을 바라보는 곳에 있다. 잡풀을 뽑고 있었는데 정원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던 그는 바지를 털면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작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 서울살이를 접고 이곳 논산으로 이사를 왔다. “환경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는 곳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황명선 논산시장이 ‘형님 고향으로 오시죠.’ 하는 거예요. 형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더군요. 그래서 정말 충동적으로 결정했어요.” 작가는 항상 내적긴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을 창조한다. 그런 내적긴장을 위해 익숙한 곳을 떠나기도 한다. 그는 일흔을 지척에 두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논산으로 내려왔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사는 방식은 자연스럽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나무처럼 사는 거지요.” 박범신 작가가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 하나는 ‘자연법을 따르는 삶’, 자연의 사이클을 삶에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쓸쓸한 배회’, 저작거리 같은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현상만 볼 뿐 본질은 볼 수 없다. 조금 멀리 있을 때 비로소 본질을 볼 수 있다.

41년 동안 작가생활을 했음에도 소설에 대한 그의 열정은 41년 전과 다름없이 뜨겁고 치열하다. 문단에서 그를 보고 ‘청년작가’라고 부르는 것은 오랜 작품 활동에도 무너지지 않은 예민한 감각 때문일 것이다.

“윤동주는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롭다고 하잖아요. 존재자체에 대한 연민으로 괴로운 거죠. 작가는 그래요. 매 순간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수시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저 역시 일상이 이렇게 편안해 보여도 늘 감정의 갈팡질팡을 겪고 있죠.” 그의 눈빛은 힘이 있다. 낯선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기운이다. 스무 살 청년 박범신의 감수성은 예순이 넘는 지금도 훼손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괴롭기도 하지만 그는 ‘예술가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여긴다.

산에서 발견한 존재의 근원

한때 그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펜을 놓은 적도 있다. 1993년 절필을 선언한 박범신 작가는 이듬해 히말라야로 떠났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떨쳐지지 않는 마음속의 고뇌를, 대자연의 숭고함을 간직한 그곳에 내려놓고 싶었다. 그는 걷고 또 걸으며 대자연의 품속에서 치유와 안식을 경험했다. 그때부터 그는 거의 매년 히말라야를 등반한다. “왜 걸핏하면 히말라야에 가냐고 물어들 보는데, 제겐 히말라야를 걷는 게 종교의식과도 같아요. 대자연이라는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만년빙하로 뒤덮인 히말라야를 바라보면 그 장중함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저 풍경일 뿐이며, 그 영원성에 견주어보면 우리 인생은 찰나에 지나지 않음을 생각하게 된다.

산악인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히말라야를 오르지만, 박범신 작가는 그저 정상을 우러러보며 길을 걷는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함이다. 박범신 작가는 그것을 ‘존재등반’이라 부른다. 둘로 분리되어 있던 자아가 합쳐지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다.

“현대의 삶이 불안한 것은 자아가 둘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나와 가열차게 사회생활을 하는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예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자본주의의 욕망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해도 행복해질 방법이 없어요. 본성대로 살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죠.” 오로지 경제지표만을 좇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행은 현재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박범신 작가는 말한다.

“큰 산은 큰 덕’이라고 했어요. 산은 인간을 가르쳐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지, 세상에서 악을 쓰며 이루려는 것들이 과연 의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보면 산을 러닝머신으로 이용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사는 방식은 자연스럽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나무처럼 사는 거지요



1. 존재의 내밀한 욕망과 그 근원을 들여다본 박범신의 장편 소설 《은교》는 지난 2012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2.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되며 누적 방문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화제의 소설 《출라체》의 배경이 된 에베레스트 서남쪽에 있는 출라체(6440m). 이 산의 정상을 오른 뒤 하산 중에 실족한 형제가 7일 만에 극적으로 생존한다. 소설가 박범신은 가혹한 생존의 길림길에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끝내 인간의 길을 걸어간 두 남자의 초상을 그린다.

것 같아요. 고관절을 튼튼하게만들어서 내일부터 욕망을 향해 더 열심히 질주하기 위해 등산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산을 오르고, 누군가는 욕망을 버리기 위해 산을 오른다. 산에 깃든 자연의 법칙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것이다.

경계 위를 걷는 외로운 등반


“매일같이 도전하죠. 내 경쟁자는 타인이 아니라 내 소설이에요. 더 새롭거나 더 깊거나 형식을 파괴하거나 어떤 면에서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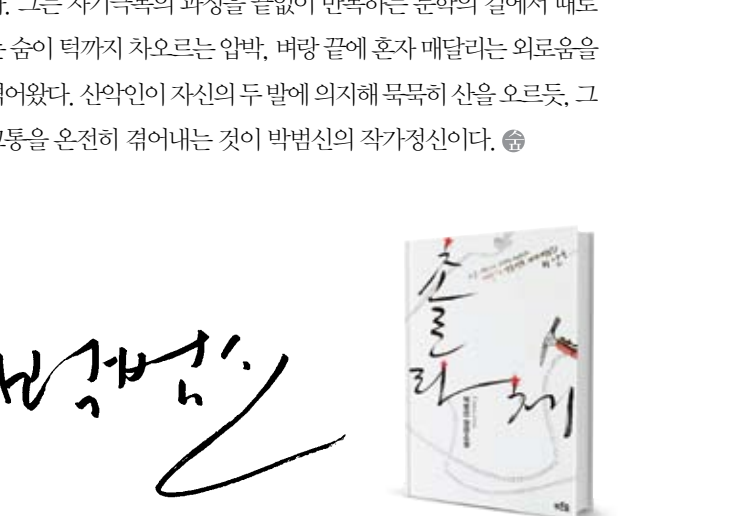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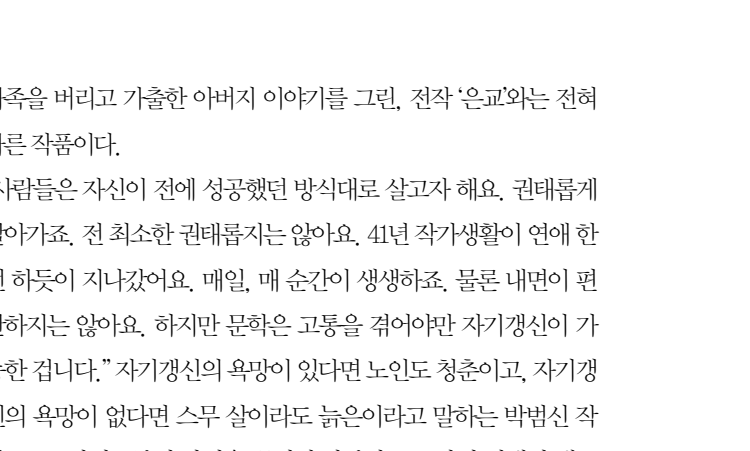
‘은교’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세간에 화제를 뿌리고 있을 때, 박범신 작가는 홀연히 논산으로 내려와 그의 40번째 소설인 ‘소곰’을 썼다.

소설가 박범신

‘영원한 청년작가’로 불리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중 1993년 돌연 절필을 선언하고 문학과 삶과 존재의 문제에 대한 겸허한 자기 성찰과 사유의 시간을 가졌다. 사유의 공간으로 선택한 곳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멀게 느껴지던 히말라야였다. 히말라야를 여섯 차례 다녀왔으며 최근에는 킬리만자로 트레킹에서 해발 5895미터의 우후루 피크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1996년 유형과도 같은 오랜 고행의 시간 끝에 작품활동을 재개한 후 영혼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작품 세계로 문학적 열정을 새로이 펼쳐 보이고 있다.

가족을 버리고 기출한 아버지 이야기를 그린, 전작 ‘은교’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전에 성공했던 방식대로 살고자 해요. 권태롭게 살아가요. 전 최소한 권태롭지는 않아요. 41년 작가생활이 연애한 번 하듯이 지나갔어요. 매일, 매 순간이 생생하죠. 물론 내면이 편안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학은 고통을 겪어야만 자기갱신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갱신의 욕망이 있다면 노인도 청춘이고, 자기갱신의 욕망이 없다면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라고 말하는 박범신 작가. 그는 자기극복의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는 문학의 길에서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압박, 벼랑 끝에 혼자 매달리는 외로움을 겪어왔다. 산악인이 자신의 두 발에 의지해 묵묵히 산을 오르듯, 그 고통을 온전히 겪어내는 것이 박범신의 작가정신이다. 



3.0으로 살펴보는
산림행정 이야기

정부3.0과
산림행정3.0





평소 콘크리트 도시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초등학교 교사 김산림 씨. 자연을 가르치는 보조교재로 나무도감을 만들려 하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 결국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포기를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운데...

글 정철호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임업사무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산림 선생님은 보조교재로 나무도감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자료를 내려 받기가 쉽지 않고, 어렵게 얻은 자료는 해상도마저 떨어지는데...
일찍 산림청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정부3.0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해 보았다. 다행히 국립수목원에서 국가식물표준목록, 나무도감, 균류도감, 식물표본, 곤충표본, 귀화식물, 식물세밀화 등 56만여 점을 개방하고 있었다.
도움을 받기 위해 국립수목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친절하게도 그에게 필요한 자료를 뽑아 메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이걸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조교재를 단숨에 푼다! 다음교재는 무엇을 만들까. 김산림 선생님의 행복한 고민이다.
이처럼 정부3.0은 정부가 가진 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국정운영 형태다. 산림청 역시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산림청의 다양한 산림행정 3.0 사례들을 김산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자. ☺

3.0 성과목표

				
	온라인 정책토론	사전정보 공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2013	20 과제	226 건	22 개	10 종
2014	30 과제	272 건	30 개	32 종
	정책현안, 국민관심사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국민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미리 선정해 공표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	2017년까지 57종 개방

산림행정3.0 사례

- 산림청의 대표적인 맞춤형 서비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

- 민간을 참여시켜 정책의 품질 향상
-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 지역주민, 학생, 기업, 민간단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

- 산림청이 개방한 등산로 정보, 식물도감, 곤충표본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산행 가능
- 관련 정보들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 창출



산림청
산림청 소개(공지사항, 일반현황, 보도자료, 찾아오는 길 등 안내)

100대 명산
산림청 선정 명산 100개소 소개 (명산찾기, 산악구조대 연결 등)



자연휴양림수목원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소개

숲에on 등산로
주요명산 150개 등산로 서비스 (등산로 안내, 날씨정보, 산악사고 등)



걷고, 보고, 느끼는 여기는 ‘서울숲’입니다

서울숲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나는 길 보니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나온 모양이었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에 함께 둘러 앉아 쫓알쫓알 거리고 싶었다.

서울숲은 그랬다. 새처럼 지저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흐르고,
한가로이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림 같았다. 그래서 걷고 또 걸었다.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나와 10분 정도를 걸으니 서울숲 입구에 도착했다. 방문자 센터에 들러 안내지도를 하나 들고 탐방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서울숲은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자연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 총 5개의 테마로 구분돼 있어 어느 곳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각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걷기는 문화예술공원을 시작으로 습지생태원까지 가는 것을 선택했다.

1. 2
도시 안에서 숲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는 행복일 것이다. 쉬면서 걸으면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서울숲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자, 미술관이다.

3. 4
생태숲을 한 눈에 바라다볼 수 있는 보행가교와, 수면에 비친 풍경이 아름다운 조각공원.



Park 1

문화예술공원

넉넉한 여유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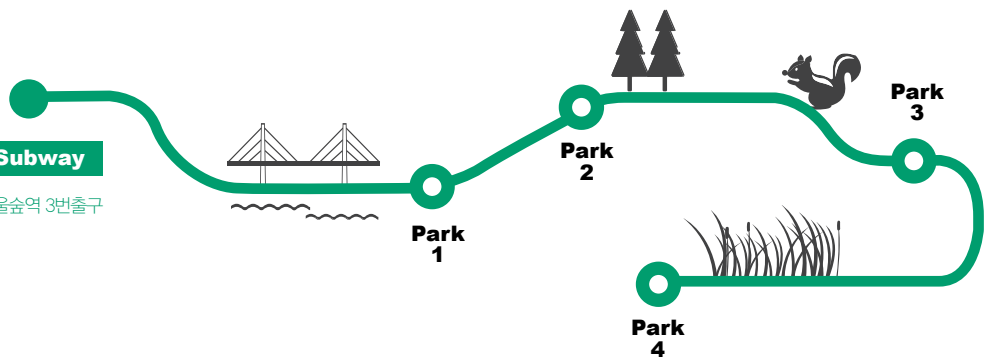
피크닉 가방에는 맛있는 간식을 가득하게, 옆구리에는 돛자리를 챙겨 일광욕을 즐기고 싶다면 문화예술공원으로 가자. 문화예술공원은 야외광장과 무대, 연못, 수변휴게실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울연못, 조각공원 등 사람들의 문화적 흥미를 이끄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특히 거울연못은 이곳의 유명한 포토존. 주변의 울창한 나무들과 파란 하늘, 하얗게 떠 있는 구름들이 수면에 비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수면에 반사되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 옆에 자리한 자연미술관인 조각공원에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인 ‘집과 가정, 산책, 들바람, 나들이’ 등이 방문객들을 환하게 반긴다.

Park 2

자연생태숲

푸르게 눈부시게

만약,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보행가교를 지난다면 분명 소리치게 될 것이다. “어머머!” 보행가교에 오르면 생태숲에 방사된 고라니, 꽃사슴 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강의 자연 풍경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멋진 산책로! 생태숲과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빌딩의 대조되는 모습도 관전 포인트다. 보행가교에서 바라보는 생태숲은 여기 저기 온통 초록의 향연이다.



5.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조각공원에 다다르면 마치 자연 속 미술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6. 완연한 초록을 내뿜고 있는 자연생태숲. 운이 좋다면 방생된 사슴들을 만날 수 있다.

Park 3

자연체험학습원

경험에서 오는 만족감

서울숲에는 푸른 나무들 뿐만 아니라 곤충과 동물들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그 중 ‘나비정원’은 도심에서 여러 종류의 나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다. 정원에 들어서자 어떤 계절인지 예측할 수없는 따스한 온도가 온몸을 감쌌다. 산제비나비, 제비나비, 남방노랑나비, 큰줄흰나비 등 몇쟁이 옷을 입은 나비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나비를 위한 식물들도 이곳의 또 다른 구경거리. 나비의 애벌레가 먹는 기주식물, 성충이 빨아먹는 흡밀식물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보고 관찰하기 좋은 안정맞춤의 공간이다.

7. 각양각색의 나비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귀중한 공간 나비정원. 나뭇잎에 앉아 쉬고 있는 나비를 보는 것만으로 신비롭다.

8. 습지생태원에 들어서자 풀벌레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이내 마음은 비밀의 정원에 들어온 것 같아 설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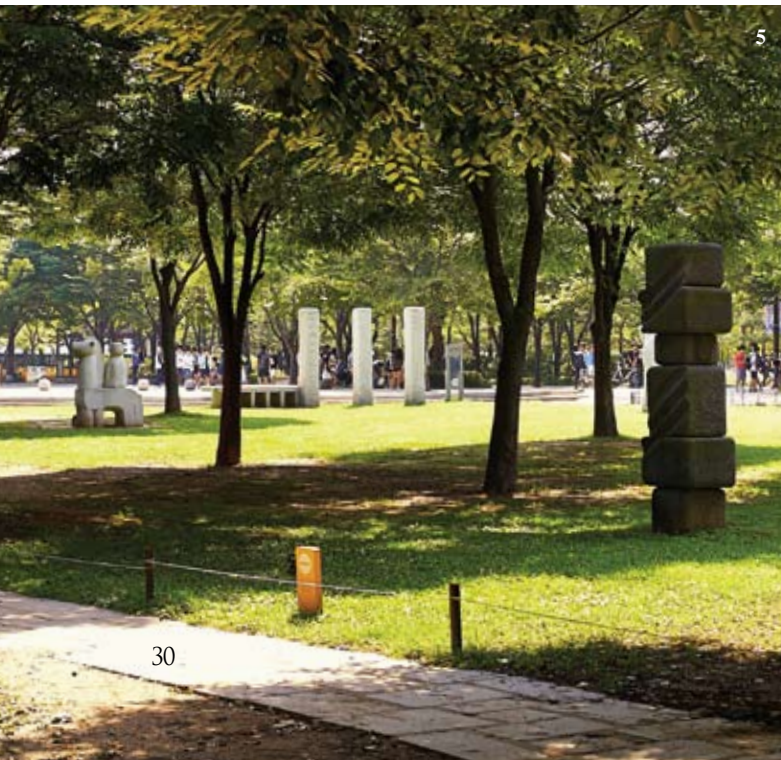
Park 4

습지생태원

고요 속 황홀함

도시 속,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고 싶다면 습지생태원으로 가자. 누군가가 귀뜸해주지 않는 다면 찾지 못할 곳이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말고 고등학교 하나를 지나고, 동네를 하나 지나 습지초화원에 도착하면 청명한 하늘 아래 풀들이 무성한 습지생태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나무데크가 습지생태원 중심부까지 설치되어 있어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주변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많은 나무들이 인공 숲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 이밖에도 갈대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긴듯한 거미줄,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울음까지. 모두가 한 데 모여 자연스러운 광경을 연출한다.

건다보니 많은 시간이 훌쩍 지나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들여다보지 못한 하늘일 것이다. ‘여유’라는 소박한 꿈을 해결해주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나눠주는 숲의 기능과 의미를 한 번 더 느껴본다. ☺



TREKKING

기능과 멋 모두 충족시키는 아웃도어 잇 아이템

오, 가을이다. 양 볼에 시원히 와 닿는 바람과 적당한 햇빛,
그야말로 걷기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바로 자연이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떠날 수만은 없는 일.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자유롭게 트레킹을
즐기고 싶다면 이색 아이템들을 준비해보자. 이제껏 보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지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손목 위의 헬스트레이너
스마트 워치 (Smart Watch)

나침반과 고도계, 온도계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워치가 출시됐다. 이 제품은 자전거나 러닝, 트레킹 시 발생하는 거리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몸무게에 맞춰 칼로리 소모량도 알 수 있다. 여기에 전화가 온 것은 물론,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내용도 보여 주며 SNS의 푸시 알람도 들어온다. 아웃도어 제품답게 크리스털 렌즈와 강화 폴리아미드 케이스 등을 활용해 뛰어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서바이벌 키트를 장착한
스마트 등산복 (Smart mountain clothes)

위급상황 대처용 서바이벌 키트를 장착한 이 등산복은 방수, 투습성이 우수한 고어 PRO MG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내피 자켓은 HEATEX를 장착하여 보온성을 강화했다. 티셔츠는 배터리, 휴대폰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더했다. 또한 야간 산행 시 위치를 나타내는 리플렉티브 필름을 사용하여 활동성을 높였으며, 별도의 HEATEX 백팩을 제공하여 최적의 산행활동에 적합한 아이템이다.

질휴 같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랜턴 (head lantern)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서서히 해가 진다면? 거기다 비까지 추적 추적 내린다면?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헤드랜턴이다. 요즘은 1개의 건전지(AA 배터리)만으로 작동하는 초경량(48g) 헤드랜턴도 등장했다. LED를 사용해 밝고 광량이 풍부하며, 전자회로가 방수 처리돼 비가 오더라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두 손을 자유롭게
워터백 (Water Bag)

KBS2 '1박2일' 시즌3에서 멤버들이 깃발을 찾아다닐 때 사용하면 서 주목받은 상품이 바로 이 워터백이다. 가방과 물통을 혼합한 형태여서 바로 호스를 입에 대고 물을 마실 수 있다. 사이클링, 하이킹, 트레킹과 같이 양손을 쓰는 아웃도어 활동에 제격이다. 워터백은 가방과 별도로 분리가 되어 세척이 쉽다. 또 휴대폰, 열쇠 등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다.

작지만 강력한
블루투스 스피커 (Bluetooth Speaker)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지장이 없는 강철 재질의 바디와 생활방수를 지원해 아웃도어 활동에 특화된 블루투스 스피커도 빼놓을 수 없는 잇 아이템이다. 텐트나 배낭에 매달아서 쓸 수 있게 튼튼한 금속 고리를 제공해 등산이나 트레킹 중 사용하기 편하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최대 8W의 고출력으로 야외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트레킹의 디지털 안내자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둘레길 트래커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지리산 둘레보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만든 해당 어플은 둘레길 코스별 안내는 물론 관광지 오디오 가이드와 비상시 긴급구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앱이 좋은 평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섬세한 정보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둘레길 곳곳의 표지목까지 표시된 만큼 이제 아무리 길치여도 길 잃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트레킹 하자! 📱

Let's Walk

북한산 둘레길	21구간 우이령길, 거리 6.8km 약 3시간 30분 소요, 난이도 : 하
함라산 둘레길	1구간 함라산길, 거리 23.9km 약 8시간 10분 소요, 난이도 : 중
송악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10코스에 해당, 거리 2.8km 약 1시간 소요, 난이도 : 하

BASIC&SMART

‘실용주의’ 캠핑의 시작

캠핑이라 하면 흔히들 뭔가 대단한 장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일단 그 생각부터 버리자. 부담을 벗고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는 순간 자연이 열린다. 단순 여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연에 목말라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캠핑은 신선하고 청량한 존재로 다가설 것이다.

글 성연재 캠핑전문가 · 여행작가



이건 꼭 준비하세요!

- 텐트**
텐트는 가장 작은 규모인 돔 텐트가 일반적이다. 보통 여름에는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가족이 누울 수 있는 공간 정도의 크기면 충분하다.
- 타프(그늘막)**
만약 숲이 우거진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타프가 오토캠핑 시 기본 장비로 꼽힌다. 타프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뿐 아니라 우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나오는 타프셀도 좋은 대안이다.
- 테이블**
야외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세트가 필수다.

코펠은 꼭 구입할 필요는 없다. 버너도 그냥 집에서 쓰던 부루스타 정도로도 시작할 수 있다.

- 발포매트**
여름이라고 바닥 냉기를 무시하면 혹독한 고행을 겪는다는 사실! 최소한 발포매트 2장은 준비해야 안락하고 편안한 캠핑이 될 수 있다.
- 상비약**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해열제와 감기약, 붕대와 밴드 등을 잊지 말자. 여성의 경우 여성용 약품 등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꼭 소리 나는 캠핑 노하우

늦봄부터는 아이스박스가 필수

야외에서 목이 마를 때, 냉장고가 없다면 괴롭다. 늦봄부터는 기온이 조금만 올라도 시원한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식재료는 집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즐거려고 간 캠핑장에서 감자나 무를 깎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볶거나 끓이기만 하면 요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료를 준비해가자.

짐을 쌓을 때도 순서가 있다

트럭에 짐을 쌓을 때는 현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꺼내야 할 텐트와 팩, 망치 등을 가장 위에 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의자 등을 먼저 꺼내두어 침낭 등 흠에 닿지 않아야 하는 것을 얹어놓는 것도 좋다. ☺

Let's
Camping

【 가을에 가볼 만한 캠핑장 】

캠핑은 '어디를 가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고급 장비를 준비하게 늘어놓은 사설 캠핑장은 되도록 피하자. 그런 곳일수록 초보자들이 주눅이 들기 쉽다. 자연과 보다 친화적인 국립휴양림이나 조용한 시골마을의 작은 오토캠핑장을 찾아보자.

* 캠핑장 전문 사이트 오마이텐트 (<http://www.ohmytent.com>) 참조



몽산포

서울에서 두 시간 남짓 차로 달리면 다다를 수 있는 섬, 몽산포해수욕장을 추천한다. 드넓은 솔밭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엄청나게 많은 텐트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몽산포는 500개의 텐트가 펼쳐질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하다. 이곳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 찰지고 단단한 모래바닥 곳곳에 맛조개와 대합 등을 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수욕을 할 만큼 모래가 부드럽고 좋으며 화장실과 야외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내기도 불편하지 않다. 가을 바다를 보며 여유로운 캠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Information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113-1
문의 : (041) 672-2971
입장료 : 2만원
예약방식 : 선착순(예약 불가)
사이트 수 : 500석 이상



500여 년의 세월이 포개진 푸른 수목원을 걷다

국립수목원



여느 수목원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따사로운 햇살이 일렁거리는 피톤치드의 숲이 생각날지도 모른다. 나뭇잎 사이사이를 파고든 햇살이 콧등을 간지럽힐 것 만 같은, 그 따스한 걸음. 국립수목원을 찾은 날은 그러한 풍경대신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알맞은 가을비가 동행했다. 비를 피하는 대신, 쏟아지는 비와 함께 수목원을 걸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았다.

수목원의 청량함을 마주하는 시간

수목원에 도착하자 이내 상쾌한 공기가 온 몸을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길은 느티나무가 시원하게 뻗어있는 ‘느티나무길’. 수목원의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숲 해설가 김용환 씨가 함께했다.

“광릉수목원으로 더 알려진 국립수목원은 조선 제7대 임금 세조가 자신의 능터를 정한 이후 시작됐어요. 그러니 역사 또한 500여 년이 훌쩍 넘어요. 당시 왕실은 숲을 부속림으로 지정하고 민간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며 관리했죠. 그러다보니 자연은 저절로 자생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됐죠. 지난 2010년 6월에는 국립수목원이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인정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천연기념물인 ‘장수풍뎅이’가 국립수목원에서 8년 만에 발견됐었죠. 오른 쪽 날개가 없는 상태로 기력이 많이 쇠했지만 발견 그 자체로 정말 기뻐요.”

김용환 씨는 가을엔 낙엽을 일부러 치우지 않아 이곳 풍경이 더 아름다다며 늦가을에 한 번 더 오라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수목원의 탐방은 나무의 잎과 수형이 아름다운 관상수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 심은 기념수가 있는 정원, 그리고 명예의 전당을 지나며 시작했다.

“수목원에는 대통령 나무라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이곳에 와 심은 것으로, 품성이나 성격이 닮은 듯한 나무들이 모여 있죠. 명예의 전당은 우리나라 산림녹화에 기여한 여섯 분의 조형물과 함께 그들의 업적을 적어두었습니다.”

1. 국립수목원의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전나무 숲길. 이 길을 걸을 때 마주했다. 가을비는 이곳을 휴안 인간숲으로 변신시켰다.

숲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다

어찌 보면 수목원을 걷기위한 가장 큰 준비물은 오래 걷겠다는 '믿음과 끈기', 자연이 그대로 내뿜는 싱그러움을 오롯이 받아들이겠다는 '넓은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수목원은 청량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 외에도 좀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았다.

“이리 와보세요. 여기가 소리정원이라는 곳인데, 콘크리트 복개를 걷어내고 개울을 만들었어요. 주변에는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식물을 심어두었죠. 이쪽으로는 버드나무가

저쪽으로는 은행나무가 있어요.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많아서 자연스레 놀이터가 된 곳이죠. 이곳에 서서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바위를 만나 부딪치고, 이리 굽고 저리 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처럼 소리정원에는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움이 존재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음악대인 것이다. 소리정원으로 나 있는 돌길을 지나 '수생식물원'으로 갔다. 오밀조밀하게 조성된 이곳은 마치 후원을 걷는 것 같은 황홀함을 선사했다.

“수생식물원은 사계절 내내 멋있는 곳이죠. 봄에는 충천연색의 활짝 핀 꽃들이, 여름에는 연꽃의 향연이에요. 가을에는 빨강계 물든 나뭇잎들이, 겨울에는 꽁꽁 얼은 수상정원에 하얗게 눈 쌓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수생식물원은 외래 도입종 보다 우리나라의 것이,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식하고 있어요. 또한 국립수목원에는 우리나라 자생 식물 960여 종이 있어요. 어느 특정한 식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같이' 살고 있죠.”

생명의 감사함을 꺼안고 걷는 길

동물 유전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산림동물 보전원'으로 가는 전나무 숲길은 어느 수목원을 탐방하는 것보다 쉽지 않았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가을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덕에 전나무 숲길은 한층 분위기를 더한 안개 숲으로 변모했고,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나무 숲길과 보전원은 산림 동식물의 보호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됐어요. 전나무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채취한 종자를 증식해 90여 년 동안 가꿔왔죠. 특히 백두산 호랑이를 관람할 수 있는 보전원과 연결되어 있어 산책코스로 좋아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생명들을 생각하며 걸어보세요. 그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은 고스란히 흙과 빗물로 범벅이 됐다. 언제 이렇게 비오는 숲을 걸어볼 수 있겠는가. 자연을 걸을 때만 체험할 수 있는 보약 같은 만남일 것이다. 한 편의 광고 같았던 전나무숲을 지나 기점인 느티나무 길에 당도했다.

걸어 온 길들을 회상하니 수목원에서 나고 자란 생명들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그리고 숲을 걸어보니 알 것 같았다. 걸어야만 알게 되는 멋진 사실들과 보는 것만으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생명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

“

국립수목원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960여 종이 있어요. 어느 특정한 식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같이' 살고 있죠.”

숲 해설가 김용환

매일 한 시간씩 일찍 출근해 수목원을 걷는다는 숲 해설가 김용환 씨. 아침마다 까막딱따구리의 '딱딱딱' 소리가 그리 좋을 수 없단다. 그가 수목원에서 근무한지는 벌써 4년째이다. 그래서인지 눈을 감고도 흰히 보일만큼 수목원은 그에게 일터이자 쉼터이다.



2. 자연을 마주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는 수목원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3. 소리정원에 가만히 서서 귀 기울여 보자. 다채로운 음악소리가 흘러나올 것이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야말로 자연의 음악이다.

4. 방문객들에게 해설을 하고 있는 숲 해설가 김용환 씨. 그의 해설은 열정이 넘쳐난다.

5. 열대·아열대식물을 모아 기르고 있는 열대식물자연연구센터. 그 중 바오밥나무를 보니 신비로움에 비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다.

6. 산림보전원에는 호랑이뿐만 아니라 멧돼지, 늑대 등 우리가 보전해야 할 동물들이 살고 있다. 사진기를 마주한 호랑이는 '두만'으로 그 기세가 등등하다.

7. 아침 비가 온 탓에 수생식물원의 수련들은 고히 잠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걷는 듯한 황홀함에 걸음걸이가 자꾸만 늦춰졌다.





COOKING

내겐 너무 달콤한 ‘밤’

밤에는 탄수화물이 많아 지나치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지만, 단백질과 칼슘 및 비타민이 풍부하여 병을 앓고 난 사람의 병후 회복이나 성장 발육이 필요한 유아는 물론 청소년의 영양 간식으로 좋은 음식이다. 깊어가는 가을 밤, 속이 꽉 찬 우리 임산물 ‘밤’을 활용한 손쉬운 레시피를 제안한다.

요리&스타일링 박용일 yong style 어시스트 남경현

밤에그쿠키

은은한 버터향과 고소한 밤의 조화

* 모든 요리는 4인 기준입니다.

재료

(쿠키 16개 분량정도) 밤 16개, 설탕 3큰술, 물 2큰술, 박력분 125g, 버터 60g, 설탕 50g, 베이킹파우더 1작은술, 삶은 달걀노른자 3개, 달걀 노른자 1개

만드는 법

1. 볼에 체에 친 박력분과 설탕, 베이킹파우더를 고루 섞어준 후, 삶은 달걀노른자는 으갠다.
2. 준비된 또 다른 볼에 달걀노른자와 버터를 휘핑기로 고루 섞은 후 1의 가루류와 삶은 달걀노른자를 넣고 반죽한다.
3. 2의 반죽을 비닐 팩으로 감싸 냉장고에 넣고 30분정도 숙성시킨다.
4. 찰흙에 김이 오르면 깨끗이 씻은 밤을 찢 후 껍질을 벗긴다.
5. 팬에 찢 밤과 설탕, 물을 넣고 졸여준다.
6. 3의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떼어낸 후 둥글 납작하게 만들고 중간에 5의 밤을 올린다.
7.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6의 반죽을 넣고 15분 정도 노릇하게 굽는다.



밤밀크라페

부드러운 거품 위에 시나몬 파우더가 솔솔

재료

밤 24개, 우유 4컵, 꿀 4큰술, 시나몬 파우더 약간

만드는 법

1. 찰흙에 김이 오르면 깨끗이 씻은 밤을 찢 후 껍질을 벗긴다.
2. 믹서에 1의 밤과 우유, 꿀을 넣고 곱게 갈아준다.
3. 2의 재료를 냄비에 붓고 끓여준 후 시나몬파우더를 뿌린다. ☞



숲 속 안내자를 따라 “녹음 가득한 숲을 알려드려요”

이성경 숲 해설가

“숲 속 나무들이 저를 응원하는 관객 같았어요. 바람 소리와 함께 끊임없이 제게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듯 했죠. 그렇게 산은,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예요. 이토록 다정한 친구를 저만 알고 있는 게 왠지 미안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산을 알려주고 싶어서 숲 해설가가 됐습니다.”



현대무용 교사에서 숲 해설가가 되기까지

가을 햇살이 높게 내리쬐던 날, 공주 봉정나래숲에서 이성경 숲 해설가를 만났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숲 해설가로 활동하는 그녀는 이날도 어김없이 유치원 꼬마 아가씨들에게 숲과 친구가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 아이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어린 나이부터 산을 접한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산을 낯설어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낯선 느낌을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이 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숲을 잘 소개하고 싶어요.” 2011년부터 숲 해설가로 활동한 그녀는, 이전까지 약 25년 동안 교직생활에서 몸을 담아온 선생님이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현대무용을 전공한 무용선생님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온 그녀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몸도 안 좋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도 위축됐어요. 그러다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숲 해설가란?

숲에 관한 문화, 교육, 역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숲을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숲 해설가 양성기관

- 총 29개(2014년 1월 27일 기준)
- 숲생태지도자협회(02-465-5598), 한국숲해설가협회(02-747-6518), 숲연구소(02-722-4527) 등

“

산은 우리를 묵묵히 받아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그런 산으로부터 포근한 위안을 얻었으면 해요. 홀로 산을 오르다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졌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산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산을 오르는데 마치 이 나무들이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관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 산에서 마음껏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되더군요. 그러다보니 웃음이 많아지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죠. 거의 매일같이 산을 올랐는데, 하루는 지인께서 그렇게 산이 좋으면 숲 해설가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도 숲 해설가라는 직업이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산에서 놀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이성경 숲 해설가는 유아숲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현재 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사 등이 있는데 모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 단계 혹은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해야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숲 해설가가 하는 일은 숲과 자연생태, 그리고 숲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을 잘 알아야하죠. 때문에 교육과정 중에는 산림교육론과 산림생태계, 더불어 산림 교육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양성 과정 등이 포함돼 있어요. 이외에도 안전교육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배우게 되죠.”

그녀는 “산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숲 해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들의 성향에 맞춰 어떤 설명을 해 줄지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흥미를 둘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되, 가장 근본은 숲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최근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직접 숲 해설가가 되고자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보다 ‘진심’이 더욱 필요하죠. 숲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숲과 산을 부단히 느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숲과 진짜 친구가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숲을 알려줄 수 있겠죠?” 실제로 그녀는 사람들에게 혼자 산을 탈 것을 종종 권유한다. 홀로 떠나야 산을 온전히 느끼고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FESTIVAL & EVENT

10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야흐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떠나야 할 계절이다.
신록의 푸름도 어느새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 마음마저 들쭉거리게 한다.
풍성한 10월,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두 손 꼭 잡고 한 번쯤 기쁨 만만 축제 소개한다.



2014 숲교육 어울림

‘숲교육 어울림’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산림교육의 홍보와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체험의 숲, 모험의 숲, 교육의 숲 총 3개의 테마로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기간 : 2014.09.19(금) ~ 10.26(일)
장소 : 강원 정선군 민동산 일원
주최 : 민동산역새꽃축제위원회
안내전화 : 1544-9053



제13회 산의 날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제13회 산의 날’을 맞아 국립산림과학원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이 개최된다. 식전행사에 앞서 한국 산림의 역사와 산림정책 소개 홍보 동영상 상영되며,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무궁화문학상,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된다. 부대 행사로는 산림문화작품 사진 전시가 있다.

기간 : 2014.10.18(토) 10:00
장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대회의실



속리산단풍가요제

단풍과 함께 어우러진 뜨거운 가요제가 속리산 잔디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선선한 가을밤, 눈과 귀가 즐거운 가요제에서 아마추어 가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맛보자.



민동산억새꽃축제

민동산은 전국 5대 억새풀 군락지 중 한 곳으로, 억새꽃으로 덮인 그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드넓은 주능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지천에 만발한 억새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피아골단풍축제

‘삼홍(三紅)과 함께하는 오색단풍 여행’을 주제로 피아골에서 열리는 단풍의 향연. 단풍숲 음악회, 은어 잡기 체험, 내고장 알리기 과거시험 등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즐거운 행사들이 함께 개최된다.



보은대추축제

대추 맛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 보은으로 가자. 알차게 여문 대추를 직접 따보는 ‘대추나무 길 걷기’와 ‘대추전통혼례식’ 등 대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기간 : 2014.10.18(토) 18:00
장소 : 속리산 잔디공원 야외 특설무대
주최 : 보은군
안내전화 : 043-540-3000

기간 : 2014.09.19(금) ~ 10.26(일)
장소 : 강원 정선군 민동산 일원
주최 : 민동산억새꽃축제위원회
안내전화 : 1544-9053

기간 : 2014.11.1(토) ~ 2(일)
장소 : 구례군 토지면 단풍공원 및 피아골 일원
주최 :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
안내전화 : 061-780-2227

기간 : 2014.10.17(금) ~ 26(일)
장소 : 보은읍 뱃들공원, 속리산 일원
주최 : 보은군/대추축제추진위원회
안내전화 : 043-540-3391~94



‘톡’ 하면 ‘톡’ 나오는 산림청 SNS의 모든 것

‘들어주세요!’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블로그

어허~, 우리 숲과 산을 지키고 아끼는 ‘임(林)자’가 되어 주세요.
[푸르미의 산림이야기]는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로,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정책이야기는 ‘산림청 소식통’ 섹션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산림지식 UP, 산림이용 정보, 푸르미 블로그기자단 등 알찬 정보가 가득하다.

세부 콘텐츠로 지금 산림청에서는, 식물 이야기, 한국의 명산 100, 행사 및 이벤트, 해외 숲을 가다! 등 단순한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취재로 생동감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4천여 명 내외로, 현재까지 6,414,038명이 다녀갔다.



개설일 : 2006.04.19

<http://blog.daum.net/kfs4079>

트위터

친구하면 좋을 트위터 9곳에 선정!

‘트친’ 하실래요?

유용하고 의미 있는 산림청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말자. 산림청 트위터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추려 상시 게재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 블로그와 연계되어 있어 주옥 같은 정보들도 그득하다. 블로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숨겨진 명산 소개, 고로쇠 물맛이 제철인 때,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9끼나 먹어야 하는 이유 등 깨알 같은 정보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 유용하다. 지금까지 31,362명을 팔로잉했으며, 32,783명의 팔로워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동영상 게재수는 645건이다.



개설일 : 2009.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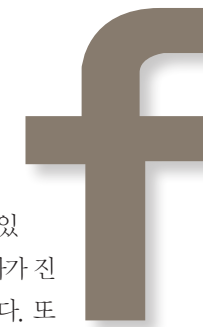
http://twitter.com/forest_news

페이스북

산림청 페이스북 3만 돌파!

산림청 페이스북은 등산과 자연휴양림을 주제로 특화된 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수시로 산림 관련 소식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토크콘서트나 숲 콘서트 등 이색 행사가 진행될 때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쌍방향 채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3만 돌파를 기념해 아직도 산림청 페이스북 모르는 친구를 소환(태그)하여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당첨자에게는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이용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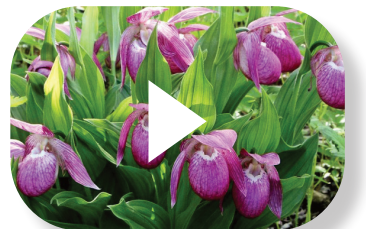
개설일 : 2010.12.2

<http://facebook.com/forestkorea>

유튜브

“개불알! 울지마, 내가 지켜줄게”

산림청 유튜브에는 식목일 캠페인송 UCC, 원격의료 광고영상, 산림 안전 관련 동영상,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규제 개혁 추진 브리핑 등 총 서른 개의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은 ‘개불알! 울지마 내가 지켜줄게’로 조회수 387,256회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숲을 만들다!’가 조회수 14,750회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한국의 100대 명산을 선정 공표하였는데, 이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다. 산림청 유튜브는 현재 884명이 구독하고 있다.



개설일 : 2011.10.18

<http://youtube.com/forestgokr>

FOREST NEWS



낙엽송 종자채취 일손 돕기

낙엽송 종자 풍년, 종자확보로 원활한 조림사업 기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낙엽송 종자 채취 일손 돕기’를 충주 수회리 채종원에서 지난 9월 19일에 실시했다. 올해 낙엽송 종자결실이 풍년을 맞았지만 일손이 부족해 채취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산림청 직원, 산림관계기관, 지역주민 등 170여 명은 자발적으로 종자채취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종자채취요령 설명 ▲종자채취 작업 ▲종자생산 활성화 방안 현장토론 ▲종자 생산과정(건조-정선-탈각-저장-비축)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낙엽송은 소나무, 편백 등과 함께 산림청 6대 조림수종 중 하나로 목재가 단단하고 무늬와 향기가 좋아 산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다. 그러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어 종자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풍년일 때 최대한 채취해야 원활한 종자공급이 가능하다.

산림분야 청년 고용박람회 개최

25일, 충남대 구직상담과 현장취업 일자리 한마당

산림청은 ‘2014년도 산림분야 청년 고용박람회(일자리 한마당)’를 지난 9월 25~26일 충남대학교에서 열었다. 충남대 야외광장에서 SK임업, 한솔홈데코, 이천산업,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사방협회 등 총 23개 기업·단체가 구직상담을 진행했다. 또 대덕홀에서는 기업설명회가 진행되고 산림공무원 시험요강과 합격비결 등 강연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비교적 정보교류가 적었던 산림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해 산림관련 전공 학생들이 취업·창업·전문직 등 다양한 산림분야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분야 청년 일자리 한마당은 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박람회로 작년보다 설명회와 취업컨설팅 등을 보강했다”며 “산림분야 전공 학생들의 정보교류의 장이자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누리집, 신뢰성과 편의성 공식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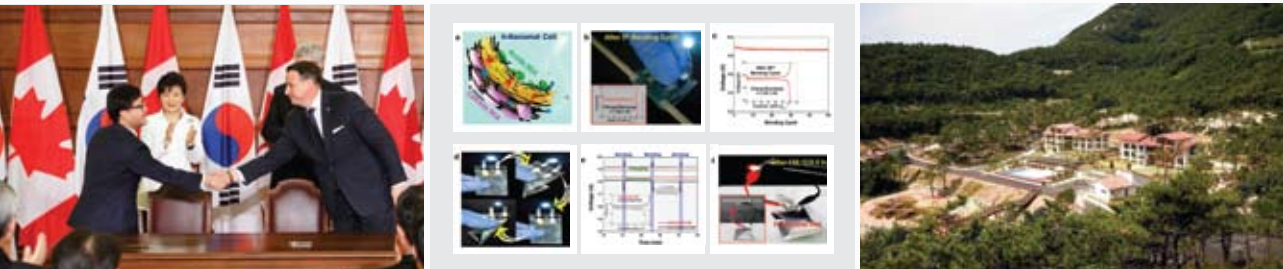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 품질인증 획득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www.forest.go.kr)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시행한 콘텐츠 품질인증에 통과해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콘텐츠 품질인증’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해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신뢰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정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누리집은 휴양·문화, 산림정책, 산림보호, 연구자료, 산림통계 등 산림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인증에서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도와 이용 편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오늘날 정보 홍수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 홈페이지가 콘텐츠 품질인증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043-850-3341

산림정책과
042-481-4037

정보통계담당관실
042-481-4163



캐나다와 산림협력 손 잡는다!

대형 목조건축 기술, 대형산불 진화기술 등 실질적 협력

산림청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한민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천연자원부(장관 그레그 릭포드)와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개도국 황폐지 복구와 해외 산림자원개발 분야에 집중해 추진해오던 양자협력을 미주지역의 산림선진국으로 확대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원격탐사와 지리정보 ▲임산물 교역 등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산림청은 대형 목조건축 시공기술 분야, 산불예방·진화기술 공동연구, 산림인증제 도입 관련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협력으로 캐나다의 선진화된 산림경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042-481-4081

세계 최초 ‘휘어지는 종이 배터리’ 원천기술 개발

나무에서 추출한 종이 분리막과 전극을 일체화시켜 형태변형 자유로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로 제조한 나노종이 분리막과 전극을 이용해 종이처럼 휘어지는 배터리(Flexible Paper Lithium-ion Batteries)를 만드는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전지와 이 전지에 포함되는 분리막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각각 약 22조원과 2조원에 달하며, 2018년까지 1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휘어지는 종이 배터리’는 둥글게 말 수 있는 롤업(Roll-up) 디스플레이와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전자소자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과학원 이선영 박사는 “플렉시블 종이 리튬이온전지의 나노종이 전극 일체형 분리막은 나무에서 얻은 천연재료로 기존 이온전지의 분리막 소재인 다공성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과 전극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면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목재가공과
02-961-2723

국내 첫 해안생태형 변산자연휴양림 개장

10월 20일부터 예약 가능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내 첫 해안생태형 변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산자연휴양림은 지난 2011년 착공해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65억 원이 투입됐다. 시설로는 방문자안내센터 1동, 산림문화휴양관 2동(24실), 해안습지관찰원 1개소, 물놀이장 1개소 등을 갖췄다. 특히, 산림문화휴양관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하루 최대 300명의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숲과 바다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물놀이장은 여름철 피서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산마실길, 변산해수욕장, 채석강,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주변관광자원도 풍부하다. 변산자연휴양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홈페이지, www.huyang.go.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042-580-5581



인사드립니다.

〈magazine 숲〉편집팀입니다.

창간을 앞두고 무척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표지는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 ‘이런 내용은 좀 식상하지 않나?’

‘다른 책들과 비슷해보이진 않을까?’ 등등 고민과 걱정들이 한데 엉켜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타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숲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magazine 숲〉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과 방향만큼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문화 전문 매거진으로서,

다양한 산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메인 콘셉트는 ‘건강한 숲,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올 한해 제작하게 될 10월, 11월, 12월호의 테마는

‘숲으로 떠나는 오감여행’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산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보고 듣다’, ‘맛보고 즐기다’, ‘느끼고 체험하다’를 떠올린 것이죠.

조금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함이 〈magazine 숲〉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점 앞에 서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후에는...

우리 숲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나무와 다람쥐, 야생화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휴식이 있는 곳

빌딩 숲에 갇혀 바쁜 일상에 지쳐가는 현대인들! 매연이 아닌
울창한 나무들이 뿜어 내는 자연의 숨을 들이 마실 수 있는 푸른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더 활기찬 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